

12/19/21

설교 제목: 번제단과 성막 뜰의 식양, 등불에 대한 규례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출애굽기 27 장 1-21 절

(출 27:1)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오 규빗, 광이 오 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삼 규빗으로 하고

(출 27:2)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놋으로 싹지며

(출 27:3) 채를 담은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읊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출 27:4) 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출 27:5)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출 27:6)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싹지며

(출 27:7)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메게 할지며

(출 27:8)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출 27:9)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찌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백 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 편을 당하게 할지니

(출 27:10)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찌며

(출 27:11) 그 북편에도 광이 백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출 27:12)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오십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출 27:13)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오십 규빗이 될지며

(출 27:14)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십오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출 27:15)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십오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출 27:16)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 놓아 짠 이십 규빗의 장이 있게 할찌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출 27:17)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출 27:18) 뜰의 장은 백 규빗이요 광은 오십 규빗이요 세마포장의 고는 오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출 27:19)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출 27:20)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짙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출 27:21)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Merry Christmas!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탄절을 Merry Christmas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하지요?

선물을 주고 받을 생각에? 친구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그동안 자주 못 모였던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오손도손 이야기 꽃을 피워 볼 생각에? 방에 콕 박혀 게으름을 피우면서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어 볼 생각에? 그도 저도 아니면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고 잠이나 실컷 자 볼 생각에?

모든 기념일은 만들어진 유래와 기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Veterans Day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국군 장병들을 위한 날이고 Memorial Day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죽은 장병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한글날은 자랑스러운 나라 말 한글이 만들어진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석가 탄신일은 석가모니의 탄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에 내려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러 이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유래와 그것이 기념하는 대상을 잊어버리고 생각없이 시류를 쫓아서 살아서는 안됩니다.

선물을 주고 받고, 친구랑 만나 놀고, 식구들과 모여 밥 먹고 이야기 꽃을 피우고 등등을 할 수는 있지만 성탄절의 근본적인 의미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말할 수 없는 희생이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참으로 복되고 즐거운 선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최대 최고의 선물이 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처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부터 계속해서 '네게 보인 대로' 만들라고 누 차 강조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출 25:9)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 25:40)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출 26:30)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출 27:8)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대상 28:19)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와 그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성막이나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히 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특히 성막 중 본장에서 다루는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게 되었는지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장은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진 성막 본체의 밖 즉 성막 뜰에 설치될 번제단(1-8 절)과 성막 뜰을 둘러 칠 울타리(9-19 절)의 식양 그리고 등불(20-21 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번제단(놋단)

번제단은 성소 문 바로 앞에 위치합니다.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안수하여 희생 제물에게 백성의 죄를 전가시킨 후 죽여 피를 뺀 후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각을 떼 이곳에 올려 놓고 태웁니다.

희생 제물이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여져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희생 제물의 향기를 흠향하시고 인간에 대한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러므로 희생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 놓고 불에 태우는 것은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 의식입니다.

(출 27:1)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오 규빗, 광이 오 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삼 규빗으로 하고

길이와 너비는 각각 오 규빗(2.22m) 높이는 삼 규빗(1.35m)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번제단 네 모퉁이에 낫으로 뿔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출 27:2)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낫으로 쌀지며 번제단은 희생 짐승을 태워 제물로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조각목으로 만든 단을 불에 강한 낫으로 덧입혀야 했습니다.

뿔은 희생 제물을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로 씌여집니다.

뿔은 힘과 능력, 보호와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뿔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낫 단에 부속된 모든 기구들 역시 낫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출 27:3)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낫으로 만들지며

(출 27:4) 단을 위하여 낫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낫고리 넷을 만들고

(출 27:5)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출 27:6)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낫으로 쌀지며

(출 27:7)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메게 할지며

재를 담는 통에는 번제단 위의 제물이 타고 남은 부스러기와 기름 덩어리 등 찌꺼기를 담습니다.

'부삽'으로는 은 제단 위의 다 탄 제물의 재를 통에 담습니다.

'대야'는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의 피를 받는데 사용됩니다.

'고기 갈고리'는 각을 뜯 고기를 제단 위에 가지런히 배열하는 데 사용됩니다.

'불 옮기는 그릇'은 '향로' 또는 '불뚱 그릇'이라고도 하는데 분향을 위해 번제단의 불씨를 향단으로 옮기는데 사용합니다.

제사장은 이 불 옮기는 그릇을 사용하여 아침 저녁으로 매일 2 회 하나님께 분향하였습니다.

'그물'은 희생 제물을 엮을 수 있도록 번제단 중간에 걸쳐 놓은 낚시로 만든 철망입니다.

번제단의 중간 지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번제단 아래에서 그물까지의 높이는 일 규빗 반(67.5cm)입니다.

불 타고 난 희생 제물의 재와 기름들이 이 그물을 통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낚 고리'는 그물을 번제단에 고정시키고 아울러 채를 꿰어 번제단을 운반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채'는 번제단에 부착된 고리에 꿰어서 번제단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긴 막대기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불에 잘 견디는 낚으로 입혔습니다.

번제단을 채를 꿰어 어깨로 메어 운반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들을 부정한 인간이 함부로 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 27:8)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단은 위 아래가 뚫린 빈 상자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먼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단을 놓았을 것입니다.

### 성막 뜯

성막 뜯은 크게 울타리 출입문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과 성소의 문을 동쪽으로 냈는데 그 이유는 동쪽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여 동쪽에서 떠오르는 찬란한 햇빛을 통해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려 한 것입니다.

### 울타리

울타리는 거룩한 성소와 세상을 분리시키는 담이며 죄인들이 함부로 침입하여 여호와와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보호막입니다.

(출 27:9)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찌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백 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 편을 당하게 할지니

(출 27:10)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찌며

(출 27:11) 그 북편에도 광이 백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출 27:12)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오십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성막의 뜰은 남편과 북편이 백 규빗(45m), 동편과 서편이 오십 규빗(22.5m)으로 하고 동편에는 이십 규빗(약 9m) 너비의 문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북편과 남편에 각각 20 개 서편에 열 개의 기둥을 놋으로 만들어 세우되 기둥 하나에 놋 받침을 한 개씩 놓아 기둥을 단단히 고정시키라고 하십니다.

그런 후 갈고리와 가름대를 은으로 만들어 세마포장으로 걸으라고 하십니다.

갈고리는 세마포장을 걸기 위해 기둥에 부착된 고리이고 가름대는 기둥들을 서로 연결시켜 튼튼히 고정되도록 하는 막대입니다.

세마포는 아마 섬유로 짠 흰색 직물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에도 사용됩니다.

## 문

울타리 동쪽으로 나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으로만 드나들게 되어 있습니다.

(출 27:13)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오십 규빗이 될지며

(출 27:14)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십오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출 27:15)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십오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동편의 너비가 50 규빗(22.5m)인데 출입구의 좌우가 각각 15 규빗씩 도합 30 규빗이니 문의 너비는 20 규빗(9m)입니다.

최악 된 세상에 거하던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줍니다.

## 뜰 문의 휘장

(출 27:16) 뜯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 놓아 짠 이십 규빗의 장이 있게 할찌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제 1 양장,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성소 입구의 휘장과 마찬가지로 화려한 네 가지 색실로 만들어졌으나 성소 입구의 휘장과 함께 그룹을 수놓지는 않았습니다.

기둥 넷과 받침 넷을 놓아 문을 고정시킵니다.

(출 27:17) 뜯 사면 모든 기둥의 기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출 27:18) 뜯의 장은 백 규빗이요 광은 오십 규빗이요 세마포장의 고는 오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 뜯은 북편 남편이 백 규빗(45m) 서편 동편이 오십 규빗(22.5m)이며 동편에는 이십 규빗(약 9m) 너비의 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막 울타리 높이는 오 규빗(2.25m)이고 성막 본체의 높이는 10 규빗(4.5m)입니다.

성막의 울타리를 성막 본체보다 더 낮게 만든 이유는 멀리서도 성막을 보고 부정한 상태로 거룩한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출 27:19)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뜯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말뚝은 성막 울타리 세마포장을 끈으로 고정시키기 위해 땅에 박는 버팀대로 여기에다 성막의 덮개들도 붙들어 댔습니다.

놋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다음은 등불 기름에 대한 규례입니다.

(출 27:20)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짙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성소 안의 등대에 공급할 기름은 향품 등 타 재료를 첨가하지 않아야 하며 오직 감람 나무 열매만을 절구에 넣고 짙어서 스스로 흘러나오는 순수한 기름이어야만 합니다.

압착기 등을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감람 나무의 잎이나 가지 등을 섞지 않고 오직 감람 열매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소 안 등불은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항상 밝히라고 하십니다.

(출 27:21)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회막은 성막의 다른 명칭으로 회중들의 집회 장소라는 뜻입니다.

등대는 성소의 휘장 앞 남쪽에 떡상과 마주합니다.

제사장은 매일 밤 등대에 다음 날 아침까지 탈 수 있도록 순결한 감람 기름을 정성껏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세상 죄악의 어둠을 밝히려 오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단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그 대속의 현장인 십자가 제단을 예표합니다.

(사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 53: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일 2:1)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일 2:2)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2000 년전 천하디 천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죽으러 이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희생으로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Merry Christmas! 즐거운 성탄절인 것입니다.

Merry Christmas!